

KSCF 선배회 12월 월례 예배

예배 이꿈이 류순권 간사(KSCF)
 반주 김수산나 목사
 (NCCCK인권센터)
 장소 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
 준비 및 진행 류순권 역사자료실 간사

침묵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다같이

♩=80 류형선 글·곡

이 말씀 따 - 라 사는 동안 지치지않 - 게 하 시고

이 말씀 따 - 라 사는 동안 주님 나 라이루소 서 -

출처 : 1997년 KSCF 노래모음집 예수 노래와 다시 살아

추모의 시간 다같이

이꿈이 기독교학생운동을 위해 헌신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추모하실 분들은
 1997년 11월 24일 소천하신 공덕귀 선배님,
 2013년 12월 18일 소천하신 강문규 선배님이십니다.



에큐메니칼 기독교학생운동을 위해 몸바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한국의 개신교회는 이스라엘 유대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이스라엘이 8m 높이의 분리 장벽을 쌓아
 팔레스타인 지역과 자신들을 구별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유로 세상과 벽을 높게 쌓으며
 자신들만의 계토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계토 안에 머물며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며
 심지어 그들을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잠깐만, 아주 잠깐만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타인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라는 시인의 말을 상기하게 하소서.
 (프리모 레비의 시들 중, 「아우슈비츠의 소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인류에게 ‘공존의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분리 장벽을 허물고 공존의 희망을 보게 하소서.
 (오세조(NCCK신학위원장) 사건과 신학 3기 기고문 중)

이꿈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같이 아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온 지혜시여,
 주님은 세상 끝에서 다른 끝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오니 오시어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불 떨기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시내산에서 그에게 율법을 주신 주님,
 오시어 당신을 고대하는 우리를 구속해 주소서.

오 셋별, 영원한 빛을 찬란함, 정의의 태양이여,
 오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누워 있는 자들을 비추어 주소서.

민족들의 열망을 채워주시는 만민의 왕이시며
 반목하는 백성들을 하나되게 하시는 주춧돌이신 주님,
 오시어 주님이 만드신 인간을 구원해 주소서.

오 임마누엘, 민족들의 희망이며 구원자시여,
 오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당신의 형상이며 당신 얼굴의 반영이신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그가 죄 말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닮게 하셨나이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친교 안에 머물게 하시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깨어 기다릴 수 있게 지켜 주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시어
 형제자매의 사랑 안에서 그 평화를 서로 나눌 수 있게 해 주소서.

이꿈이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반주)

S.S

Words & Music by 신영진

F Bb

1. 천사들의 노래가 - 하늘에서 불리네 -
 모진만물기 - 뻗어 - 산과 들이 노래해 -
 2. 구유만물기 - 이긴다 - 어린아기에 - 수제 -
 오빠나신구 - 주리니 - 영원하신왕 - 이라 -

Gm7 Bb/C C

모두소리높 - 여서 주의나 - 심전하세 -
 아름다운노 - 래가 먼세상 - 에퍼지네 -
 우리들모든나 - 함계 기쁜찬 - 송부르자 -
 세상모든나 - 라 별 기뻐화 - 답하여라 -

F Dm7 F/C

산위에영웅 - -라 - 예수나심전 - 하세 온세상
 하늘엔영웅 - -광 - 인 땅위에평 - -화 만왕의

Bb F/A Gm7 1.C 2.C Bb

- 구세주 - 이 땅에 오심 - 을 - Fine
 - 왕되신 - 예수 그리스도 - - 선포해 -

F/A Fm7/Ab Gm7 Bb F/A

영광을 주 - 님께 - 높이게 신 주 - 님께 -

(Fm7/A) (last time play)
 Gm7 Bb C Play 4 times
 찬양받기 합 - 당한 - 주 경배 하 - 여라 - D.S. al Fine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주소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두운 이 땅을 밝히시기 위해 새벽별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세상의 어두움에
 우리 몸을 숨기며 살아왔던 시간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새벽 별을 따라 곧 밝은 해가 동터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으로써
 이 세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도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주시고,
 모두가 평화롭고 기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며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또 세상을 섬겨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또한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실을 기억하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함으로
 소외당하는 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방에 전하여
 평화를 이루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을 데리고 개울을 건넌 다음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도 건네 보냈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 뒤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나 동이 트기까지 그와 씨름을 했다. 그분은 야곱을 이겨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찼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를 다치게 되었다. 그분은 동이 밝아오니 이제 그만 놓으라고 했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다고 떼를 썼다. 일이 이쯤 되자 그분이 야곱에게 물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너는 하느님과 겨루어냈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그러니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말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십시오.” 그분은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고는,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야곱은 “내가 여기서 하느님을 대면하고도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다. 그가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떠올랐다.

- 이꿈이** 차별과 혐오의 굴레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 소외받는 자리에서 외로이 떨고 있는 소수자를 위해 축복한 목회자의 행위를 교단 재판을 통하여 출교를 선고한 행위는 결코 주님의 교회가 행하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사랑의 실천에서 발현되는 것이기에 환대 목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목회자의 행위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 다같이**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이꿈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 앞에서 있습니다. 12월 8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시국회를 통해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말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찬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국회 앞 생활을 언제 마무리할 수 있을지 답답할 뿐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임시국회 내에서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다같이**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꿈이 정전 70년인 한반도에는 주님의 평화가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70년 동안이나 휴전상태로 지내온 세월이 그 얼마입니까.
 한반도에는 긴장보다는 화해가, 대결보다는 화합이,
 반목보다는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평화와 화평의 하나님, 한반도에 속히 임하셔서, 평화를 이루소서.

다같이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평화의 인사

다같이

이꿈이 주님께서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다같이 앞에 계신 분들의 평화를 빕니다.
이꿈이 주님께서 우는 이를 위로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다같이 옆에 계신 분들의 평화를 빕니다.

봉헌

내 평생에 가는 길

다같이

1. 내 평 생 에 가 는 길 순 - 탄 하 여
 2. 저 마 귀 는 우 리 를 삼 - 키 려 고
 3. 내 지 은 죄 주 리 흥 빛 같 - 더 라 도
 4. 저 공 증 에 구 름 이 일 - 어 나 며

늘 잔 잔 한 강 갈 든 지 큰 풍 파 모 무 섭 고
 늘 입 벌 리고 달 려 와 도 주 예 수 는 우 리 의
 주 에 수 께 다 아 피 면 주 주 십 자 가 피 로 썩
 큰 나 팔 이 울 린 때 에 주 오 셔 세 상 을

어 렵 든 지 나 의 영 혼 은 늘 편 - 하 - 다 -
 대 장 되 니 끝 내 싸 워 서 이 기 - 리 - 라 -
 다 찢 으 사 흰 눈 보 다 더 정 하 - 리 - 라
 심 판 해 도 나 의 영 혼 은 겁 없 - 으 - 리

내 영 혼 평 안 해

내 영 혼 내 영 혼 평 - 안 - 해

이름이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뻐 여기시어 받아 주소서.
 (한국 카톨릭 기도서 중에서)

다같이 아멘

이름이 오, 주 하나님,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과 함께
 세계기독교학생총연맹 WSCF,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KSCF의
 학생기독교운동과 이 땅,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여 주소서.

다같이 아멘

♩ = 72

A A Dm Gm Dm A Bm E7sus4 E7 D E7

A D♭7 Gm B7 E7 A D♭7

Gm D B7 E7 A D♭7 Gm

D Bm E7 Bm Dm Bm Dm A Bm7 E7

A A D♭7 Gm B7 E7

A D♭7 Gm D B7 E7 A D♭7

Gm D Bm E7 Bm Dm Bm Dm A

Bm7 E7 A D♭7 Gm D Bm

저들에 푸 르른 슬픔을 보 라 들 보 는

사 람도 하나 없 는 태 비 비람 맞 고

눈보라 처 도 온 누 리 끝 까 지 만 것 무 르

다 서 업 고 쓰 러 단 지 난 날 들 도

다 시 는 다 시 는 모 지 말 라 고 땅 울 리 리

라 채 우 치 리 라 가 길 은 들 만 에

슬픔 되 리 라 무 리 들 거 진 것 비

2023년 10월 회계보고

- 봉헌 8만원 (KSCF 선배회 분담금으로 입금)
- 지출 ① 하성웅 목사님 설교 사례비 5만원
② 박세론 간사님 반주 사례비 5만원
③ 장소 대여비 5만원(NCCK 후원금)
- 누계 2022년 12월 ~ 2023년 10월
- ① 봉헌 누계 : 137만 2천 700원
② 지출 누계 : 130만 4천원
③ 현재 잔고 : 6만 8천 700원

2022년 12월 15일, 제1차 KSCF 선배회 월례예배



2023년 1월 19일, 제2차 KSCF 선배회 월례예배



2023년 2월 16일, 제3차 KSCF 선배회 월례예배



2023년 3월 16일, 제4차 KSCF 선배회 월례예배



2023년 4월 20일, 제5차 KSCF 선배회 월례예배



2023년 5월 18일, 제6차 KSCF 선배회 월례예배



2023년 6월 15일, 제7차 KSCF 선배회 월례예배



2023년 8월 17일, 제8차 KSCF 선배회 월례예배



2023년 9월 21일, 제9차 KSCF 선배회 월례예배



2023년 10월 19일, 제10차 KSCF 선배회 월례예배

